

상록탑

여러분이 '피키 블라인더스' 를 봐야하는 이유

시대극과 정치적 올바름이 공존할 수 있을까. 오늘날처럼 인종, 성별, 성적체성 등 다양한 가치가 혼재된 다원적 사회에서 그러지 못했던 과거를 배경으로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단일적이고 정치적 올바름에 무관심한 사회라면 걱정을 할 필요 없겠다. 하지만 다문화가 진행된 지 100년이 넘었고, 나름 선진국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려 노력하는 영국 정도 되는 나라라면 그러한 고민을 할 법하다. 2013년에 제작돼 각종 시상식을 휩쓸고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영국 드라마 '피키 블라인더스(Peaky Blinders, 2013-)'는 이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건
편집부국장

“
시대극의 딜레마를 해결한 명작

보인다. 극 중 시층의 에피소드1은 당시 영국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던 중국인들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틈틈이 극 속에 등장해 당시 있던 사실을 그대로 고증하는 역할을 수행해낸다. 절대적으로 소수였던 흑인도 피키 블라인더스의 멤버로 등장해 당시 영국인들의 인종차별적인 모습을 꼬집으며, 주인공인 헬비 가문은 애초에 '순혈' 영국인이 아닌 집시의 피가 흐르는 그래서 때때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갱스터임에도) 멸시받는 이들로 그려진다.

“
뿐만 아니라 정부 비밀요원, 매춘부, 노동자, 공산주의자, 망명한 러시아 대공녀까지. 제작진은 당시 시대에 존재할 수 있었던 여러 형태의 여성상을 끌어와 주제적인 캐릭터로 해석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실존했던 갱스터이자 제목이기도 한 피키 블라인더스는 봉긋한 모양(peaky)의 모자에 면도칼을 넣고 다니다가 싸움이 벌어지면 상대방의 눈을 그어 장님(blinders)으로 만들었다는 데에서 유래했다. 즉 잔인한 장면이 종종 연출된다. 하지만 잔인한 장면에서 눈을 감는 번거로움을 감안한다면 볼만한 드라마다. 진정으로 잔인한 것은 평화로운 화면 속 각종 혐오와 배제로 얼룩진 컨텐츠이기 때문이다.

학생 칼럼

Not history but Herstory

8월 14일, 세계 '위안부' 기림일에 영화 '허스토리'(2018)를 관람했다. 의미 있는 날만큼 감독과 연출, 배우 김희애가 참석해 관객과의 토크형식으로 GV가 진행됐다. 그 중 인상 깊었던 두 가지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한다.



최승은
정외15

“
그 남자의 이야기가 아닌
그 여자의 이야기

입을 닫자. 엄마가 눈치 보는 사회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아니, 지긋지긋하다. 두 번째는 영화가 소재를 그리는 방식이다. 일본군 성노예는 감정적인 소재다. 그럼에도 감독은 흔한 방식인 '슬프고 불쌍하게' 할머니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다. 주인공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한다. '피해자답지 않게' 말이다. 극 중 "재판에서 지면 어떡하냐"는 할머니의 격정에, 원고단 단장은 지면 어떡하냐며 50여 년을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살아온 할

머님인데, 일본에 가서 대체 왜 그랬냐고, 사과하라고 손가락질이라도 실컷 하고 와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다. 그렇다. 할머니들이 바라는 건 사과 하나다. 그런데 그런 할머니들에게 '자기가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했다가 이제 와서 늙고 돈 없으니 피해를 주장한다.'던, 어디선가(같은 날 아침 경기도지사 성폭행 판결 포털 기사에서) 본 것 같은 대사가 있었다. 실소가 나왔다. 여성으로 태어나 오늘 날까지 고추 하나 달린 걸 상패쯤으로 여기는 남성에게 이런 말들을 듣고, 좀 배웠다. 남자는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세상. 그렇기에 영화 속 할머니들의 당당한 모습은 이 영화를 완벽하게 멋지게 만들었다.

“
“사과를 해라! 그래야 짐승에서 인간이 된다. 지금 기회를 줄게. 부디 인간이 돼라..” 관객과의 대화 중 제목에 대해 감독은 결과적으로 '허스토리'라는 제목이 많은 남성 관객(그리고 여성 등도)을 배제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중간 누앙스인 '관부'(할머니들이 일본에 가서 한 재판 이름)가 후보에 있었다고 했다. 제목이 주는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보다 거부감 없이 허스토리를 피했던 관객들을 데려올 수도 있었겠다. 그러나 작품이 담는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했다. 허스토리, 히스토리가 아닌.

여론광장

객관성의 객관성의 객관성의...

우리는 모두 바쁘다. 기준에 세워져 있는 기준에 부합하려고 바빠 움직이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 상처를 받는다. 우리는 죽을 만큼 노력해서 평범해지려 하고, 자신이 보편-타당한 사람임을 증명하려 애쓴다. '객관성, (철학) 주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대상 자체에 속하여 있는 성질' 객관성의 사전적 정의다. 우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객관성을 찾아 울부짖는다. 누군가가 무엇에 내린 판단에 대해 이것이 과연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판단인지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 그렇게 수없이 의심해서 얻어진 객관적인 산물을 우리는 믿었던만, 미국의 소설가 수전 손택은 '타인의 고통'에서 "사진은 대상화한다. 사진은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변형시켜 버린다"며 그 산물을 또다시 부정한다.

손택은 대표적인 배신의 산물로 사진을 제시한다. 사진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증명하는 증거로 많이 사용될 만큼 객관적인 기준으로 적용되며 우리가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는 철저히 객관적인 사진작가가 의도한 대로 끌려가고 있었다. 비단 사진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 눈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는 곧 우리 주변에 객관성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득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객관성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과연 필요하냐는 회의감이 든다. 사회는 우리들의 모임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그 언어 속에 많은 것들이 오간다. 한 사람이 말하는 언어 속 명제에 타인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거와 공감요소가 있다면, 굳이 객관성이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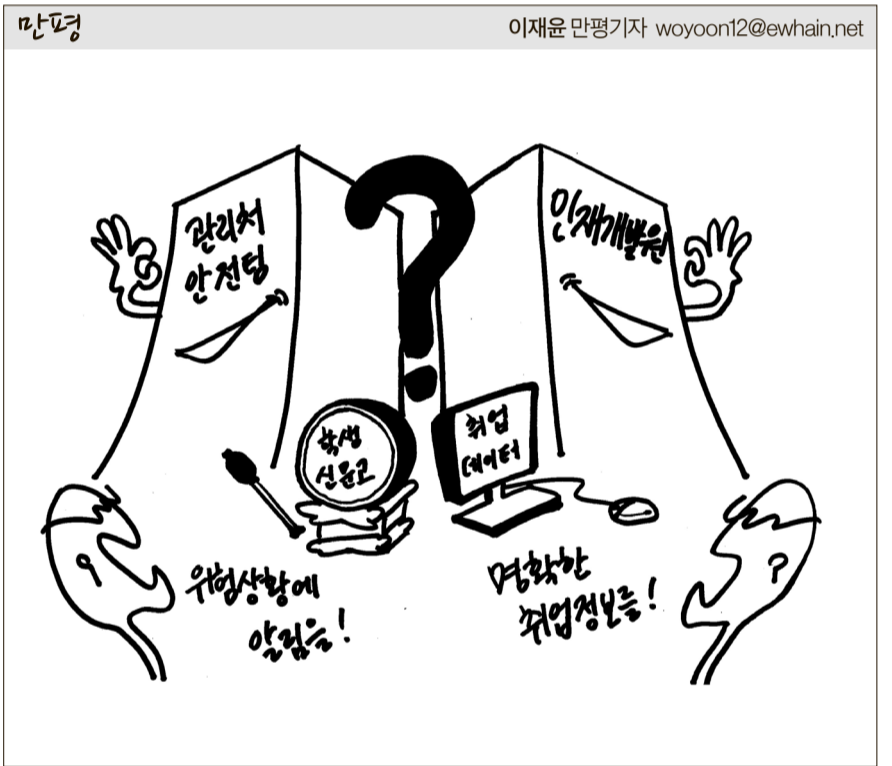
요할까? 예를 들어 월드비전에서 후원 홍보차 제시하는 사진이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관적인 사람이 의도한 것이어도, 그 의도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의도라면? 객관성이라는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에 모든 것을 일관되게 잡고 거짓으로 나누고, 그 절대적인 기준이 틀렸음이 증명돼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위험한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개입돼 참과 거짓이 확실하지 않아도 모두의 토론으로 거짓을 참으로 바꿀 수 있다면? 사람들이 수 천 년 동안 생각하고 논해온 객관성에 대해 이 짧고 조그만 글로 완강히 부정하는 것이 위험하고, 내 생각이 짧은 것일 수 있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객관적이지 않으면 어떤가. 객관성의 객관성을, 그 객관성의 객관성을 끊임없이 파지며 발생하는 모든 오류를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위해 무시하는 것보다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개입된 우리 모두의 주관성을 나는 지지한다. 김혜진(영문16)

사설

아직 모호한 미래계획, 구성원들에게 도움 될까

기획처 기획팀에서 미래 계획을 내놨다. 해당 미래 계획은 9월 중 대학평의원회 심의, 발전계획 수립안을 확정 한 뒤 구성원들에게 공유될 예정이다. 본 계획은 4년 후인 2022년까지 진행된다. 발표한 미래계획에는 학사제도 유연화, 연구 지원, 지속 가능 대학 경영체계, 이화 가치 제고 등 추진과제 총 6개가 실려 있다. 이 과제에는 최근 대학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학내 분권화 방안, 안정적인 대학 재정 운영 기반 마련 방안, 학생들이 요구해왔던 이화 브랜드 가치 구축 및 소통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 재정까지 대학 전반에 걸친 미래 계획인 것이다. 이 미래계획에 따르면 학교는 분권화를 통해 단체 운영 방식에 차차 변화를 불러올 예정이다. 이미 시험적으로 분권화를 진행할 예비 대학은 썩혀 있다. 다만 일괄적으로 모든 단체에 자율성을 줬던 타대와 달리 단체가 원하는 분야만 분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본교만의 특색이 두드러지는 분권화 모델이다. 더불어 학과별 사업 추진을 돕는 5단계 특성화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눈에 띈다. 이외의 사업들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강화하는 수준이다. 아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드러난 바 없다. 미래계획 자료에도 한 과제당 6줄 남짓의 설명이 있을 뿐이다. 기획팀은 현재 초기 단계라 시행 중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자세한 것을 정해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흐릿한 계획은 구성원들에게 이 계획이 향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을 일으킨다. 또한 기획팀은 제시한 6가지 과제 모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과제 간 우선순위가 부재하다면 4년 내에 과연 몇 개의 과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제 하나라도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현재 학교는 미래 계획에 담긴 과제 외에도 행정부처 개편으로 인해 각 부처에서 제시한 새로운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계획 과제 모두를 한 번에 시행하기는 버거워 보인다. 학교는 확정안이 나오기까지 예정된 회의,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학내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금주의 책



기후변화의 심리학 : 우리는 왜 기후변화를 외면하는가

- 조지 마셜 저음, 서울 : 갈마바람, 2018. 이 책은 심리학자이자 기후과학자, 환경운동가인 저자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무관심한 이유를 찾아내고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요컨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유발하는 공포감과 잠재적인 희생을 원치 않는 인간의 오래된 심리와 본성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맞설 것인가는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전합니다. 폭염, 홍수 등 예기치 못한 기후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아픈 지금,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화인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중앙도서관- 서고위탁 :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 책 / 5층 일반자료실 551.6 M356d한]

0801~0830 중도 대출순위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신과 함께 : 저승편 : 주호민 만화 개정판	주호민	애니북스	2017
2	인소의 법칙	유한려	Itbook : 디앤씨미디어	2015-
3	1Q84 :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촌상춘수	문학동네	2009-2010
4	(청소년) 토지 : 박경리 대하소설	박경리	이룸	2003
5	신과 함께 : 신화편 : 주호민 만화 개정판	주호민	애니북스	2017
6	신과 함께 : 이승편 : 주호민 만화 개정판	주호민	애니북스	2017
7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Proust, Marcel	팬글클래식코리아 : 웅진씽크빅	2015
8	수호지 개정판	시내암	민음사	2011
9	(만화) 심팔사략	고우영	두산동아	1998
10	토지 : 박경리 대하소설	박경리	나남	2002
11	토지 : 박경리 대하소설	박경리	마로니에북스	2012
12	(새로 만든) 만나라 이웃나라 [전면개정판]	이원복	김영사	2012-2013
13	살인자의 기억력 : 김영하 장편소설	김영하	문학동네	2013